

완벽하게 슬럼프 떨친 김효주... 올 시즌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까

LPGA 파운더스컵 우승... CME 글로벌 랭킹 2위 등극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 김효주에게 더 이상의 시련은 없다. 깊은 부진에 빠졌던 김효주는 지난해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더니 이제 세계 정상 자리를 본격적으로 노린다.

김효주는 23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샤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번 대회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파죽의 기세를 달리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LPGA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2015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며 루키의 탄생을 화려하게 알렸던 김효주는 다사다난했던 11년을 보낸 후 다시 챔피언 자리를 탈환했다.

LPGA 투어 통산 8번째 타이틀이자 한

미 통산 22번째 정상이다.

LPGA에서 통산 6승을 달리던 김효주는 미국 데뷔 10년 차였던 지난 2024년 골프 인생에서 가장 힘든 1년을 보냈다.

당시 그는 LPGA 18개 대회에 나서 우승 없이 톱10에만 3번 진입하는 데 그쳤다. 컷 탈락도 3번이나 경험했다.

한때 세계랭킹 5위까지 올랐던 그의 이름 옆에 붙은 숫자는 29까지 늘어났다.

슬럼프를 인정한 그는 훈련으로 이를 극복했다. 김효주는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며 남다른 각오로 2025시즌을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그는 반등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다.

지난해 LPGA 개막전부터 톱10에 이름을 올리더니 5번째 대회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김효주는 지난해 3월 LPGA 포드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등극, 두

시즌 만에 리더보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2025시즌 그의 성적표는 18개 대회에서 톱10 7회, 우승 1회, 준우승 3회에 달했다.

CME 글로벌 랭킹도 7위를 찍었다. 2024년 59위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세였다.

2026시즌 기세는 더욱 뜨겁다. 지난달 시즌 첫 대회였던 혼다 LPGA 타이틀에서 단독 3위에 오르더니 한 달 만에 우승까지 차지했다. 시즌 3번째 대회 만이자 딱 1년 만의 LPGA 우승이다.

비록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CME 글로벌 랭킹도 8계단 상승하며 단독 2위(768점)로 뛰어올랐다. 1위 벨리 코르다(미국·820점)와의 차이는 단 52점에 불과하다. 김효주의 다음 무대는 포드 챔피언십이다. 지난해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김효주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타이틀 방어까지 도전한다. /뉴시스



김효주가 2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샤론하이츠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파운더스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와 함께 V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효주는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투어 통산 8승을 달성했다. /뉴시스

제31회 순천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20개 클럽 850여 명 참가,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순천시는 지난 22일 팔마실내체육관과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순천시체육회, 순

천시배드민턴협회와 함께 '제31회 순천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

다. 이번 대회는 관내 20개 클럽에서 약 850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해 연령별·급수별로 나뉘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평소 갖고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클럽 간 응원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종 결과 ▲종합우승 연향클럽 ▲A그룹 우승 신대클럽 ▲B그룹 우승 부영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 속에서 순천 생활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스튜디오인 전 타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정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8경기 연속 침묵' 손흥민... 무뎠던 결정력 안고 홍명보호 승선

홍명보호, 28일 코트디부아르·4월1일 오스트리아와 A매치 2연전

홍명보호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이 골 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손흥민은 22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사커(MLS)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스틴과 0-0으로 비겼다.

이날 최정방 스트라이커로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5차례 슈팅을 기록했으나,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 시즌 손쉽게 상대 골문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슈팅은 이번이 상대 수비에 막혀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4분에는 오른발 슈팅이 늦어 수비수 몸에 맞았고, 전반 34분에도 왼발 슈팅이 수비수 발을 맞고 나왔다.

후반 32분에는 역습 찬스로 일대일 기회를 만드는 듯했으나, 쫓아온 상대 수비 둘과의 경합에서 공을 빼앗겼다.

후반 41분에는 슈팅을 때리기 직전에 상대 수비수 테클에 걸려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의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첫 공식전인 지난달 18일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페넬티킴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올린 뒤 한 달째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9경기에서 공격포인트 8개를 기록 중인데, 이 중 7개가 도움이다.

심지어 유일한 득점도 페넬티킴으로, 필드골은 단 한 골도 없다.

공격포인트는 적지 않으나, 직접적인 득점이 없는 건 분명 우려할 만하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 LAFC에 합류해 리그 후반기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렸다.

하지만 올 시즌 정규리그에선 5경기 동안 득점 없이 도움만 3개 기록하고 있다.

침묵에 빠진 손흥민의 무뎠던 골 감각은 월드컵 개막을 3개월 앞둔 홍명보호엔 고민거리다.

손흥민과 경쟁하는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오현규(베식타시), 조규성(미트왈란)이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득점 포를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현규는 튀르키예 무대 진출 후 정규리그에서만 4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헝크에서 뛰던 벨기에 무대까지 포함하면 이번 시즌 통산 15골을 넣고 있다.

홍명보호 감독으로서 원톱 자리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속팀에서 골 갈증을 풀지 못한 손흥민은 A매치 시간을 맞아 영국 밀턴케인스로 향한다.

홍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밀턴케인스에서 코트디부아르와 3월 원정 A매치 2연전 중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 4월1일 오스트리아와 두 번째 경기를 벌인다.

골 침묵에 빠진 손흥민이 태극마크를 달고 2026년 첫 필드골을 넣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